

미아레 축제
매년 10월 1일, 어민들에 의해
오시마 섬에서부터 해상 행차하여
세 여신이 규슈 본토의 헤쓰미야
신사에 집결한다.



세 여신 신앙으로서의 계승

오키노시마 섬의 제사를 진행했던 고대 호족 무나카타 가문은
오키노시마 섬에 깃든 신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무나카타 세
여신으로 신앙을 키워나갔습니다. 오키노시마 섬은 오시마
섬과 규슈 본토에서도 세 여신을 모시는 무나카타타이샤
신사의 일부로서 섬에 관련된 급기 사항 및 요배 전통과
더불어 오늘날까지 신성한 존재로서 계승되어 왔습니다.

오키쓰미야 신사 요배소에서
보이는 오키노시마 섬
급기 등으로 인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수평선상의 오키노시마 섬을 요배하기 위한
장소가 마련되었다.

무나카타타이샤 오키쓰미야 신사
(오키노시마 섬과 주변의 암초인 곶아지마, 미카도바시라, 덴구이와)
다고리히메노카미 신

무나카타타이샤 나카쓰미야 신사
다기쓰히메노카미 신

무나카타타이샤 오키쓰미야 신사 요배소

무나카타타이샤 헤쓰미야 신사
이치키시마히메노카미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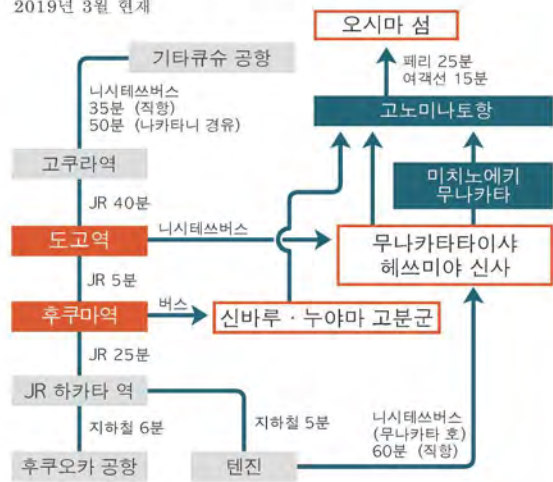
신바루 · 누야마 고분군



유산군 찾아가기

무나카타 · 후쿠쓰 지역 방면

2019년 3월 현재



*오키노시마 섬은 상륙할 수 없습니다



‘신이 깃든 섬’ 을 숭배하는 문화적 전통의 물증

규슈 본토에서 약 60km 떨어진 오키노시마 섬은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신이 깃든 섬’으로서 숭배되어
왔습니다. 섬 내부에는 유례를 볼 수 없는 제사유적이 남아
있어 동아시아 제국간의 활발한 교류와 더불어 4세기
후반부터 9세기 말까지 이어진 항해 안전을 기원하는 고대
제사 방식을 말해줍니다.



세계유산

‘신이 깃든 섬’

무나카타 · 오키노시마와 관련유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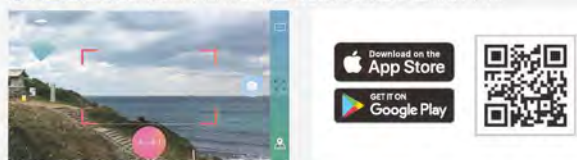
관광 정보

무나카타 관광가이드
www.muna-tabi.jp

후쿠쓰 관광 길잡이
www.fukutsukankou.com

스마트폰용 앱 ‘길잡이 오키노시마 섬’ (iOS / Android)

- ①라이브 카메라 모드 : ‘지금’ 오키노시마 섬이 보이는지 확인 가능!
- ②AR 모드 : 카메라로 오키노시마 섬의 방향을 표시해 준다!
- ③지도 모드 : 오키노시마 섬이 보이는 장소와 요배소를 소개합니다!



유산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신이 깃든 섬’ 무나카타 · 오키노시마와
관련유산군은 2017년 7월에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인류 공통의 보물로서의 유산군의 가치를
확실하게 후세에 전해주기 위하여 산책·
견학시에는 오른쪽 사항에 관해 배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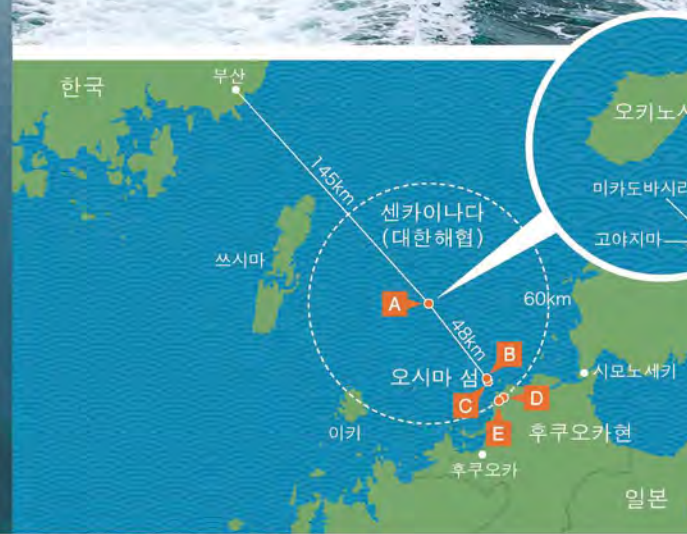
- 제사유적 및 고분의 분구묘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책 코스 중에는 개인 주택 근처를 지나가는 장소가 있으므로 폐가
되지 않도록 무단으로 개인 부지에 들어가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삼가해 주십시오.
- 차도 및 도로 폭이 좁은 장소, 등산길 등 위험한 곳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발행 · 문의처



‘신이 깃든 섬’ 무나카타 · 오키노시마와 관련유산군 보존활용협의회
(사무국: 후쿠오카현 세계유산실)
전화 092-643-3162 팩스 092-643-3163 전자우편 sekaisan@pref.fukuoka.lg.jp

그림/ 기타노 요코
2019년 3월 발행



- A 무나카타타이샤 오키쓰미야 신사
(오키노시마 섬과 주변의 암초인 곶아지마, 미카도바시라, 덴구이와)
- B 무나카타타이샤 오키쓰미야 신사 요배소
- C 무나카타타이샤 나카쓰미야 신사
- D 무나카타타이샤 헤쓰미야 신사
- E 신바루 · 누야마 고분군

무나카타타이샤 오키쓰미야 신사

(오키노시마 섬과 주변의 암초인 고야지마, 미카도바시라, 덴구이와)

고대 제사와 대외교류

오키노시마 제사 유적의 변천



오키노시마의 금기

- ▶ 일, 섬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오이와즈사마')
- ▶ 일,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돌 한 개라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
- ▶ 일, 섬에 들어갈 시에는 알몸이 되어 바닷속에서 부정을 씻는 '미소기(禊)'를 해야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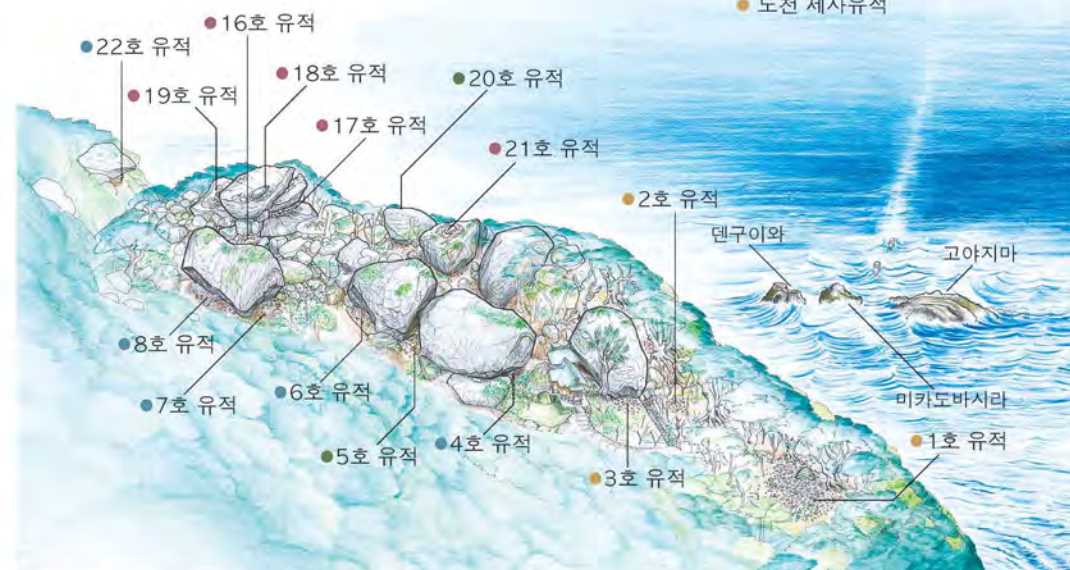
- 바위위 제사유적
- 바위그늘 제사유적
- 반 바위그늘·반 노천 제사유적
- 노천 제사유적



조사에 의해 발견된 봉헌품 약 8만 점은 일괄하여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와 중국대륙 더 나아가서는 페르시아(이란) 등 해외로부터 전래된 물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키노시마 섬 중턱에 있는 거마군 주변에는 천년 이상이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고스란히 지켜 전해온 제사 유적이 있습니다. 바다를 넘나드는 활발한 대외교류를 배경으로 유적의 위치는 약 오백년간에 네 단계로 변천해 갑니다. 자연승배에 뿌리 내린 신앙에 근거하여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향해 안전을 기원했는지를 말해주는 대단히 귀중한 유적입니다. 고대 이후에도 섬 전체가 무나카타타이샤 오키쓰미야 신사 경내이며, 인간을 접근시키지 않는 '신이 깃든 섬'으로서 오키노시마 섬은 금기와 더불어 현대까지 지켜져 왔습니다.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 세 여신 신앙



오키쓰미야 신전



미타케산 제사 유적 출토 상황

일본열도로부터 한반도에 이르는 해역의 수호신으로 섬겨져 국가적인 제례 의식이 거행되어 온 오키노시마 섬이지만, 7세기 후반 무렵에는 공통된 제사가 오시마 섬과 규슈 본토에서도 거행됩니다. 오시마 섬의 미타케산 산정, 규슈 본토의 헤쓰미야 신사 경내의 구릉지대(시모타카미야)에서는 오키노시마 섬에서도 사용되고 있었던 특징적인 제사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8세기 초에 완성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무나카타 가문이 세 군데에서 세 여신을 모시고 있다는 기술과 부합하며 무나카타 세 여신을 모시는 무나카타타이샤 세 신사의 기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의 이름인 '다고리(다키리)'는 안개에서 '다기쓰'는 조류가 빠른 소용돌이 치는 모습에서 '이치키(이쓰키)시마'는 신을 섬기는 섬 또는 신이 계시는 섬에서 유래하여 세 여신의 기원이 오키노시마 섬에서 향해 안전을 기원한 신앙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여신에의 신앙은 신전이 있는 세 신사에서 거행되는 제례 의식과 더불어 무나카타 지역 사람들에게 의해 지켜져 온 것입니다.

구성유산 관계도



평가기준 (ii)

'건축이나 과학기술 등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일정 기간에 걸친 가치관의 교류 또는 일정 문화권 내에서의 가치관의 교류를 나타내는 것'

향해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에 바쳐졌던 다양한 내력을 지닌 풍부한 출토품들로부터 '신이 깃든 섬' 오키노시마 섬은 4세기부터 9세기에 걸친 동아시아 국가간의 대외교류의 중요성을 시사해 줍니다. 사용된 제기들의 배치와 제장(祭場)의 구성 등의 제사의 변천은 중국대륙, 한반도, 일본열도를 거점으로 한 국가들의 정체성 발달 과도기에 일어났으며, 일본 문화의 형성에 본질적으로 공헌한 활발한 교류의 성질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유산군의 가치

평가기준 (iii)

'한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존재를 전승하는 독보적 또는 특출한 증거'

'신이 깃든 섬' 오키노시마는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발전 계승되어온 '신이 깃든 섬'을 승매하는 문화적 전통의 유례 드문 사례입니다. 오키노시마 섬에 보존되어 온 고고학적 유적은 거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그곳에서 행해졌던 제례의식이 약 오백년간에 걸쳐 어떤 식으로 변천했는지 기록을 제공해 줍니다. 오키노시마 섬에 대한 승매는 오시마 섬과 규슈 본토에서의 '요배' 전통과 더불어 오키노시마 섬의 오키쓰미야 신사, 오시마 섬의 나카쓰미야 신사, 규슈 본토의 헤쓰미야 신사라고 하는 무나카타타이샤 신사의 세 신앙의 자리에서 무나카타 세 여신에의 신앙이라는 형태로 이어져 왔습니다.



신바루 · 누야마 고분군

오키노시마 제사 의식을 떠맡아 오키노시마 섬에 있던 신에 대한 신앙을 무나카타 세 여신의 신앙으로 발전시킨 고대 호족 무나카타 가문의 분묘군입니다. 5세기부터 6세기에 걸쳐 당시 내해에 면했던 대지(台地) 위에 축조된 전방후원분 5기, 원분 35기, 방분 17기로 총 41기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장기에 걸친 다양한 규모와 양식의 고분이 집중되어 축조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지(台地) 위에서는 옛 내해의 전원과 그 너머

현해탄이 한눈에 들어와 바다를 의석하여 축조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 대지(台地) 중심부에 축조된 전방후원분은 야마토왕권과의 연대가 강했던 유력자의 무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권 밑에서 한반도를 향한 항해와 오키노시마 섬에서의 제사를 담당함으로써 세력을 키운 고대 호족 무나카타 가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고분군입니다.



고분군 축조 당시 이미지

전시·해설 시설

카멜리아스테이지 역사자료관

신바루 · 누야마 고분군을 비롯하여 고대 무나카타 가문과 관련된 후쿠쓰시 시내의 고분 출토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개관/ 10:00~20:00
휴관/ 화요일 (국경일인 경우는 다음 평일)과 매월 마지막 수요일

후쿠쓰시 쓰야자키 1-7-2
전화 0940-72-1207



무나카타타이샤 헤쓰미야 신사

무나카타타이샤 헤쓰미야 신사는 규슈 본토에 소재하는 무나카타 세 여신 신앙의 거점으로 이치키시마히메신을 주된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쓰리카와 강의 옛 내해에 들출한 구릉지대의 시모타카미야 제사 유적을 기원으로 그 기슭에는 신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무나카타 가문의 자손이며 대외교역으로 번성한 무나카타 다이구지 가문이 신앙을 관장했던 중세의 헤쓰미야 신사 경내에는 세 여신을 각각 모시는 제1궁(현재의 본전)·제2궁·제3궁을 비롯한 신전들이 들어서 있어 주요한 구성요소가 현재에 계승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본전은 마지막 다이구지가 된 무나카타 우지사다에 의하여, 배례전은 당시 지주권을 차지했던 고바야카와 타카카게에 의해 16세기 말에 재건된 것으로서 더불어 국가 중요문화재입니다. 시모타카미야 제사 유적의 일부는 다카미야 제장으로서 정비되어 신전을 이용하지 않는 제례 의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오른쪽 사진).



다카미야 제장

전시·해설 시설

무나카타타이샤 신보관

오키노시마 섬에서 발견된 국보 불동품 8만 점 외에도 고문서 등 무나카타타이샤 신사의 역사를 전하는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개관/ 9:00~16:30
휴관/ 연중무휴

무나카타시 다시마 2331 (헤쓰미야 신사 경내)
전화 0940-62-2311



무나카타타이샤 나카쓰미야 신사

무나카타타이샤 나카쓰미야 신사는 오키노시마 섬을 비롯한 무나카타 세 여신에의 신앙이 든든한 오시마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으로서 다카쓰미에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미타케산 산정의 미타케산 제사유적을 기원으로 하며 산기슭의 바다에 면한 고지대에 신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6세기 문헌에서는 산정의 미타케신사(위쪽의 신사)와 산기슭의 나카쓰미야 신사(본신사)이 나란히 서 있는 현재와 같은 경내 상황이 확인되었으며, 에도시대의 지도에는 산정과 산기슭이 이어지는 참배길 그려져 있습니다.(오른쪽 그림). 산정과 참배길, 산기슭의 본전 주변이 일체적으로 나카쓰미야 신사 경내를 구성합니다. 현재의 본전은 17세기 무렵에 재건된 것입니다 (후쿠오카현 지정 유형문화재). 미타케산 산정에서는 오키노시마 섬 외에도 이키 섬, 대마도 등 현해탄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으며 섬 남쪽에서도 기타큐슈시 지역부터 후쿠오카시 지역까지 규슈 본토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오시마가 해상 교통상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쿠젠노부니조후후도키 부록" "오시마 섬지도(부분)" (1797년, 히라카와 가문 소장)



무나카타타이샤 오키쓰미야 신사 요배소

오키노시마 섬으로부터 48킬로미터 떨어진 오시마 북단에 마련된 오키노시마 섬을 멀리서 배례(요배)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신전은 오키노시마 섬 쪽을 향해 있어 오키노시마를 신으로 모시는 배례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8세기 초까지는 이 장소에 요배소가 마련되었습니다. 공기가 맑은 날에는 이곳으로부터 뚜렷이 오키노시마 섬이 보입니다(아래 사진). 오키노시마 섬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섬이므로

에도시대에는 평상시에는 이곳에서 오키쓰미야 신사의 제례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오시마 어부의 아내들은 이곳에서 오키노시마 섬으로 고기 잡으러 나간 남편이 무사하기를 빌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매년 봄·가을의 오키쓰미야대제는 이곳에서 거행되며 평상시에는 닫혀 있는 신전의 문과 창문을 열어 오키노시마 섬을 예배합니다.



오키쓰미야 요배소와 오키노시마(1960년경)

전시·해설 시설

오시마교류관

나카쓰미야 신사와 오키쓰미야 신사 요배소를 중심으로 오키노시마와 관계 깊은 오시마 섬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해설하는 시설입니다.

개관/ 10:00~16:00
휴관/ 화요일 (국경일인 경우는 다음 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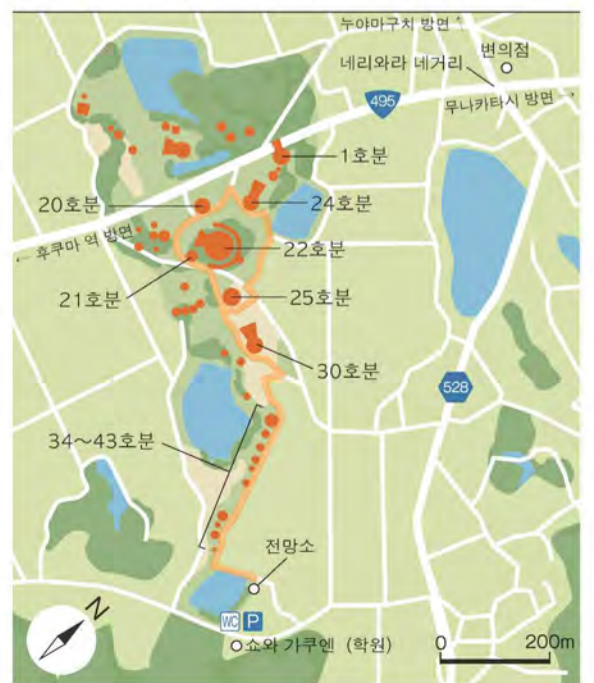
무나카타시 오시마 901-4
전화 0940-72-2797



무나카타타이샤 헤쓰미야 신사 둘러보기



신바루 · 누야마 고분군



교통편

'도고에키마에(도고 역 앞)'에서 니시테쓰버스로 약 10분 '무나카타타이샤에(무나카타타이샤 신사 앞)' 하차 후 바로.

추천 경로

A 제2도리이 → B 신바루 → C 본전 → D 본전, 배례전 → E 미타케신사 → F 다카미야 제장 → G 제2궁, 제3궁 → H 신보관

산책코스(총 거리 1.3km) 소요시간 약30분(도보)

교통편

1 '후쿠마에(후쿠마 역 앞)'에서 니시테쓰버스로 25분 '누야마구치' 하차 후 도보 15분(24호선 부근에 도착).

2 '카멜리아스테이지(후쿠마 역 앞)'에서 니시테쓰버스로 '후쿠쓰시 문화회관 앞'에서 하차.

카멜리아스테이지 방향

'후쿠마에키마에(후쿠마 역 앞)'에서 니시테쓰버스로 '후쿠쓰시 문화회관 앞'에서 하차.

카멜리아스테이지에서 신바루 · 누야마 고분군 방향

1. '히가시마차에서 니시테쓰버스로 '누야마구치' 하차

2. '카멜리아스테이지에서 후쿠쓰시 버스로 22분 '쇼와가쿠엔마에' 하차 후 바로.

산책코스(총 거리 2km) 소요시간 약40분(도보)

전시·해설 시설

우미노미치 무나카타관

오키노시마 섬 내부의 모습을 소개하는 3D 일체형상관을 비롯하여 유산 전체의 가치를 해설해 주는 무나카타시의 문화재 전시 시설입니다.

개관/ 9:00~18:00
휴관/ 월요일 (국경일인 경우는 다음 평일)

무나카타시 후카타 588
전화 0940-62-2600

현해탄

신바루 · 누야마 고분군

무나카타타이샤 헤쓰미야 신사

오시마항 방향

오키노시마 섬 방향

가네자키

오리하라 신사

쓰리카와 강

고노미나토항

여객터미널

미치노에키 무나카타

사쓰키 마쓰바라

무나카타 우지사다의 묘

우미노미치 무나카타관

무나카타타이샤 신보관

진코쿠지 절

가쓰우라미네노하라 고분

후나쓰니기시리 등

누야마구치 버스정류장

안노노사토

가타와카성터

무나카타 시청

다테카키 신사

오미노야마 산

아라시 토보 터미널

아라시 쓰루키조카 고분

아라시야마 산

유쿠에오스카 고분

다구미시하타케 유적공원

카기노시마촌

도고 역

고노미야카 고분

쓰야자키

카멜리아스테이지 역사자료관

미야지다케 신사

미야지다케 고분

데마키 나미카리후도 고분

후쿠쓰시 시청

후쿠마 역

진고 신사

0 1000m

무나카타타이샤 오키쓰미야 신사 요배소

0 20m

신전

미타케산 방향

오시마교류관 방향

무나카타타이샤 나카쓰미야 신사

0 20m

전망대

미타케 신사

오키쓰미야 신사 요배소 방향

미타케산 신정부

나카쓰미야 신사 본전 평면

아메노마나야

본전

말사

사무사

적너 신사

테이샤(손과 입을 씻는 곳)

0 20m

오시마 섬

0 500m

확대 맵

무나카타타이샤 오키쓰미야 신사 요배소

무나카타타이샤 나카쓰미야 신사

나카쓰미야 신사 본전 - 미타케산 신정(표고224m) 도보 약20분

오시마항 여객터미널

오시마 버스노선

오시마항 여객터미널과 포대터 간, 하루 7편

편명	고노미나토 출발	오시마 출발
1	7:40	6:50
2	9:25	8:35
3	11:15	10:15
4	13:50	13:00
5	15:30	14:40
6	17:10	16:20
7	19:00	18:00

산책코스(총 거리 7km) 소요시간 약2시간30분(도보)

버스 노선

오시마항 여객터미널과 포대터 간, 하루 7편